

인간의 욕망을 향하여

작가 나성욱

문명을 잠재운 섬, 그곳에 휴식만 있습니다. 필리핀의 '노아 이사벨'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성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지요. 대홍수를 피해서 온갖 생명체가 배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피난처였습니다. 필리핀 아플릿 섬에 위치한 클럽 '노아 이사벨'도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젖은 현대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태고의 휴양처입니다. 바깥 것이 있다면, 좁은 배 안이 아니라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이른바 지상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문예상의 낭만주의란 고전주의(classicism)에 반항하여 18세기 말 유럽에서 일어난 주의입니다. 법칙과 규범적인 것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창조 정신의

자유로운 발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Byron과 Shelley, 프랑스의 Rousseau, 독일의 Schlegel 형제 등은 이 주의를 대표합니다.

주로 18세기의 영국문학사조에 대한 명칭으로 의고전주의(擬古典主義:pseudo-classicism)가 있지요. 19세기의 낭만주의(romanticism)의 입장에서의 호칭으로 약간의 경멸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라틴의 고전을 문학의 선구로 생각하는 방법은 일찍이 르네상스 때부터 영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의 영국 고전주의를 직접 낳은 것은 프랑스 문학으로서 왕정복고에 의하여 프랑스에 망명한 귀족들이 프랑스 고전주의를 본국에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사회에 벌써 상업출신인 중산계급이 토지의 구매 등에 의하여 대지주가 되어, 귀

족계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회의 이중성이 프랑스의 것과는 상이한 특징을 영국의 고전주의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극작가·비평가로 계관 시인(1670 ~1688)을 거친 드라이든(J.Dryden :1631 ~1700)을 거쳐 영국의 고전파시인 포프(A.Pope :1688 ~1744)에 의하여 영국의 고전주의가 최성기에 달하였으며, 가장 프랑스적인 균형을 중요시하는 형식과 합리적인 정신이 조화되어 발휘되었습니다. 또 합리주의를 철저히 관철한 사람으로서 스위프트(Swift)를 들 수 있지요. 애디슨(Addison)과 스틸(Steele)은 중산계급의 생활에서 풍기는 세련된 맛과 멋을 유감없이 표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생활에 고전주의를 적용한데에 영국적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 고전주의의 최후의 대가는 Dr. Johnson이라 불리는 존슨(S. Johnson :1709 ~1787)이며, 여기에 고전적 규칙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성을 특히 엿볼 수 있습니다.

분수에 맞는, 연령에 걸 맞는 재테크는 따로 있습니다. 재테크에도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우연한 번뜩임이 아

닙니다. 무엇이 발상력을 저지하고 있는지, 발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하는 습관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한번 익힌 집중력은 평생의 재산입니다.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집중력 향상법을 익혀야 합니다. 집중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문만 해도 답이 보입니다. 헌신가는 배려, 자기희생이 강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취가는 목표, 순위를 우선합니다.

주인을 충실히 지켰던 개(dog)에 관한 소설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와 관련된 설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으며, 한국에도 수십종의 의구전설(義狗傳說)이 있지요. 기록에 나타난 것으로는 고려 고종(高宗) 때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종류로서는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산(善山)군 도개(桃開)면 임동(林洞)에 있는 의구총(義狗塚)의 전설입니다. 연향(延香) 역리(驛吏) 김성발(金成發)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술이 많이 취하여 낙동강 동안(東岸)에 있는 월몰정(月沒亭)에 이르러 정신을 완전히 잃고 길가에 누워 자는 동안에 때마침 산불이 접

근했습니다. 그 때 따라갔던 개가 꼬리에 강물을 적셔다가 산불을 꺼서 주인을 구출하지만, 기운이 다한 개는 죽어버립니다. 이에 충직한 의리에 보답하여 후하게 장사지내고 무덤을 써주었으며, 그 비석은 당시 선산부사 안응창(安應昌)이 세워준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옛날 어떤 사람이 소를 팔아 가지고 돌아오다가 도둑에게 돈을 빼앗기고 살해당했습니다. 이 때 따라갔다가 이를 목격한 개가 집에 달려와 집사람들의 옷자락을 끌면서 짖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따라가 보았더니 주인의 시체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이를 관가에 알려 도둑을 수소문하여 찾아보았으나 알 길이 없어 포 기상태에 있다가, 역시 개의 힘을 빌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개가 죽었을 때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미국의 극작가 윌리엄스(T. Williams)가 지은 희곡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가 있다. 미국 남부의 몰락한 대농원지주(大農園地主)의 딸 블랜치(Blanche)를 통해 여자의 성(性)의 좌절과 분열을 그린 불멸의

작품이다. 3막짜리 희곡인데 1947년에 초연되었고 풀리처상을 받았다.

욕망(欲?慾望)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이다. 즉 부족을 느껴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다. 욕망이 난망(欲忘而難忘)이란 말이 있다. 잊으려 하나 잊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윌리엄스(1911~1983)는 주로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였으며, 1947년과 1957년에 풀리처상을 받았는데, 작품으로 『욕망(慾望)』이라는 이름의 전차(電車) 외에 또 하나의 걸작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등이 있다.

윌리엄스는 미시시피주 출신인데, 혼란한 현대의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현실사회에서 단절되어 환상과 추억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간을 실험적인 수법으로 그렸다.

치밀한 장면구성으로 즐거움을 전개시키는 초기 수법은, 1950년에 들어서자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대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고립감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

는 인간이 사랑과 미움을 통해서 결합을 찾지만 좌절한다는 주제는 일관되어 있다.

그는 1930년대의 대불황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후에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직업을 바꾸다가 1940년대에 극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작품에는 《유리 동돌원》과 1948년에 풀리처상을 수상한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여름과 연기》가 있다. 그리고 《장미의 문신(文身)》과 1955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볼타의 희곡 《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가 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 생각없이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가슴이 푸근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졸음이 옵니다. 꿈에서 다시 만나시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